

행위자 지향 구문과 피행위자 지향 구문의 비대칭성

송 남 선

大阪??法科大?

1. 서론

행위자 지향 구문(Agent-oriented constructions)과 피행위자 지향 구문(Affected-oriented constructions)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의 같은 현상을 표현하며 또한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

1. ㄱ. *Mary hit John.*

ㄴ. *John was hit by Mary.*

행위자 지향 구문의 일종인 영어 능동문 (1 ㄱ)은 피행위자 지향구문인 (1 ㄴ)과 같은 가치를 가지며 어느 한쪽이 참이고 다른 한쪽이 거짓이 되는 경우란 있을 수 없다. 본고에서 쓰는 피행위자란 (1)의 *John*에 주어지는 전통적인 의미역할인 수동자(Patient)와 (2)의 *John*에 주어지는 수익자(Beneficiary)를 통합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따라서 (2 ㄱ)과 (2 ㄴ)은 각각 같은 의미를 지닌 행위자 지향 구문과 피행위자 지향 구문이라 하겠다.

(2) ㄱ. *Mary sang John a song.*

ㄴ. *John had Mary sing a song (for him).*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같은 가치를 가지는 구문이기 는 하나 그 쓰임과 분포를 개별언어들에서 고찰하면 두 구문이 늘 같은 빈도와 범위를 가지고 쓰이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언어에 따라 다양한 양상과 비대칭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행위자 지향구문과 피행위자 지향구문의 쓰임과 분포를 분석 비교함으로써 두 언어간의 유형론적 차이를 드러내려는 시도의 일단이다.

2. 일본어의 수익구문

예문 (3)의 *John*은 행위자가 수행하는 행위 혹은 사건에서 이익을 얻는다는 뜻에서 ‘수익자’(Beneficiary)라 부를 수 있다.

(3) ㄱ. *Mary bought a car for John.*

ㄴ. *Mary bought John a car.*

(3 ㄱ)에서 *John*이 ‘수익자’로서의 해석을 받는 것은 본래 수익의 뜻을 나타내는 *for*에 의하여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3 ㄴ)은 수익의 표시인 *for*가 없는데도 (3 ㄱ)와 같은 해석을 받는다. 본고에서는 Shibatani(1994, 1996)와 Kaga(1997)을 따라 (3 ㄴ)와 같은 구문을 수익구문(Benefactive construction)이라 한다.

Pinker(1989)와 Levin(1993)은 수익구문 형성이 술어동사가 ‘창조동사(Verbs of creation)’나 ‘획득동사(verbs of obtaining)’일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4) ㄱ. *Mary made a toy for John.*

ㄴ. *Mary made John a toy.*

(5) ㄱ. *Mary bought a book for John.*

ㄴ. *Mary bought John a book.*

창조나 획득을 나타내지 않는 다음과 같은 동사들은 수익구문을 만들 수가 없다.

(6) ㄱ. *Mary opened the door for John.*

ㄴ. **Mary opened John the door.*

(7) ㄱ. *Mary killed the centipede for John.*

ㄴ. **Mary killed John the centipede.*

일본어에서는 술어동사에 *te-yaru/te-ageru*(-어 주다)를 첨가함으로써 수익의 뜻을 나타낼 수 있다. 그 경우 수익자는 수익의 뜻을 어휘적으로 나타내는 *no-tameni*(~을 위하여)와 함께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여격의 *ni*로 표시될 수도 있다.

(8) ㄱ. *Hanako-wa Taroo-no-tameni kuruma-o kat-te-yat-ta*

Top for car-Acc buy-give-Past

‘Hanako bought a car for Hanako.’

ㄴ. *Hanako-wa Taroo-ni kuruma-o kat-te-yat-ta*

Top Dat Acc buy-give-Past

‘Hanako bought Taroo a car.’

본고에서는 Shibatani(1994, 1996)와 Kaga(1997)에 따라 (8 ㄴ)과 같이 수익자가 여격으로만 표시된 구문을 수익구문이라 한다.

Shibatani(1994, 1996)와 Kaga(1997)는 일본어의 수익구문에 나타날 수 있는 동사가 영어에서처럼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아래 예문들은 일본어 수익구문의 용인성의 단계적 차이를 보여준다.

(9) ㄱ. *Mary-wa John-ni e-o kai-te-yat-ta*

Top Dat Picture-Acc draw-give-Past

‘John draw Mary a picture.’

ㄴ. *Mary-wa John-ni uta-o utat-te-yat-ta*

Top Dat song-Acc sing-give-Past

‘Mary sang John a song.’

ㄷ. *Mary-wa John-ni to-o ake-te-yat-ta*

Top Dat door-Acc open-give-Past

‘Mary opened John the door.’

ㄸ. *⁹Mary-wa John-ni mado-o ake-te-yat-ta*

Top Dat window-Acc open-give-Past

‘Mary opened John the window.’

ㄹ. **Mary-wa John-ni to-o shime-te-yat-ta*

Top Dat door-Acc close-give-Past

‘Mary closed John the door.’

ㅁ. **Mary-wa John-ni mukade-o koroshi-te-yat-ta*

Top Dat centipede-Acc kill-give-Past

‘Mary killed John a centipede.’

(9)의 예문들은 일본어 수익구문도 영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술어동사가 창조나 획득을 의미할 때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짐을 보여준다. 영어와 일본어의 차이는 일본어에서는 (9 ㄸ)처럼 창조나 획득을 뜻하지 않는 상태변화동사도 수익구문을 만든다는 점이다. ‘문을 연다’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생기게 하거나 얻게 하는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Shibatani(1994)는 (9 ㄸ)와 같은 수익구문을 설명하기 위해 환유(metonymy)개념을 도입한다. Shibatani 에 의하면 (9 ㄸ)에서 만들어져 수여되는 것은 ‘문’이 아니라 거기에서 연상되는 ‘통로’이며, (9 ㅁ)이 용인되지 않는 까닭은 그와 같은 환유적 창조의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3. 행위자 지향 수익구문과 피행위자 지향 수익구문

Kaga(1997)는 일본어의 수익구문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제공해 주고 있으나 그 분석 대상이 행위자 지향 수익구문에 제한되어 있으며 일본어의 특징의 하나인 피행위자 지향 수익구문에 대한 고찰과 두 가지 수익구문의 차이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수익구문인 예문(10 ㄱ)이 나타내는 사건은 *John* 을 주어로 삼고 술어동사에 *te-morau*, *te-itadaku* ‘receive’를 첨가함으로써 표현될 수도 있다.

(10) ㄱ. *Mary-wa John-ni kuruma-o kat-te-yat-ta*

Top Dat car-Acc buy-give-Past

‘Mary bought John a car.’

ㄴ. *John-wa Mary-ni kuruma-o kat-te-morat-ta*

Top Dat car-Acc buy-receive-Past

‘John had Mary buy a car for him.’

행위자 지향 수익구문 (10 ㄱ)과 피행위자 지향 수익구문 (10 ㄴ)은 논리적으로 동일하며 대칭상(a mirror image)을 이룬다. 그러나 행위자 지향 수익구문과 피행위자 지향 수익구문의 쓰임과 분포는 현저한 비대칭성을 보여 준다.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행위자 지향 수익구문은 술어동사가 창조나 획득을 의미할 때 가능하다. 그 경우 통사 구조와 의미구조는 다음과 같이 형식화 될 수 있다.

(11) 통사구조 : [NP₁(nom), NP₂(dat), NP₃(acc), *te-yaru*]

의미구조 : CAUSE (*w*, GO (*x*, *y*, *x* WITH *z*)

w is encoded as NP₁

x is encoded as NP₂

z is encoded as NP₃

(9 ㄷ)와 같은 경우에서 *z*는 대격을 지닌 NP₁의 외연이 아니라 *w*가 일으킨 행위의 결과 *x*에게 주어지는 존재(entity)이다. 이 경우 *x*에게 주어지는 존재는 NP₁의 외연에서 환유적으로 쉽게 연상되는 것이라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9 ㄴ, ㄹ, ㅁ, ㅂ)과 같은 수익구문은 용인되지 않는다.

한편 아래의 예문들은 행위자 지향 수익구문 파생을 위하여 필요한 제약들이 피행위자 지향 수익구문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12) ㄱ. *John-wa Mary-ni e-o kai-te-morat-ta*

Top Dat picture-acc draw-receive-Past

‘John had Mary draw a picture for him.’

ㄴ. *John-wa Mary-ni uta-o utat-te-morat-ta*

Top Dat song-acc sing-receive-Past

‘John had Mary sing a song for him.’

ㄷ. *John-wa Mary-ni mukade-o korosi-te-morat-ta*

Top Dat centipede-acc kill-receive-Past

‘John had Mary kill a centipede for him.’

ㄷ. *John-wa Mary-ni to-o ake-te-morat-ta*

Top Dat door-Acc open-receive-Past

‘John had Mary open the door for him.’

ㄹ. *John-wa Mary-ni to-o sime-te-morat-ta*

Top Dat Acc close-receive-Past

‘John had Mary close the door for him.’

예문 (12 ㄷ)과 (12 ㄹ)은 피행위자 지향 수익구문 파생에서는 행위자 지향 수익구문 파생과 달리 ‘창조’나 ‘획득’을 그 전제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즉 일본어 피행위자 지향 수익구문 파생은 (11)에 명시된 의미구조의 ‘Go (x, y, x WITH z)’의 부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일본어의 피행위자 지향 수익구문 파생은 어떠한 행위나 사건이 피행위자를 ‘향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3 ㄴ)은 *Mary*가 *John*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많이 먹은 경우이나 *Mary*가 많이 먹은 결과가 우연히 *John*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경우이나 모두 쓰일 수가 있다.

(13) ㄱ. **Mary-wa John-ni takusan tabe-te-yat-ta*

Top Dat a lot eat-give-Past

‘Mary ate John a lot’

ㄴ. *John-wa Mary-ni takusan tabe-te-morat-ta*

Top Dat a lot eat-receive-Past

‘John had Mary eat a lot (for him).’

예문 (13 ㄴ)에 대한 분석은 일본어의 피행위자 지향 수익구문 파생이 행위자가 수익자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행위자가 일으키는 행위의 방향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다시 말하여 그 파생은 (11)에서 제시된 의미구조의 ‘CAUSE (w, (X))’부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관찰에서 다음 세 가지 점을 알 수 있다.

i) 일본어의 행위자 지향 수익구문은 행위자의 의도에 의하여 행위자가 일으킨 행위가 수익자에게 향하여진 결과 수익자가 무엇인가를 얻었다고 해석될 때 용인된다.

ii) 일본어의 피행위자 지향 수익구문은 행위자의 의도나 행위의 방향에 구속되지 않고 피행위자가 벌어진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또는 주관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해석될 때 용인된다.

iii) 논리적으로 ii)는 i)을 함의하며 i)은 ii)의 한 부분을 이룬다. 따라서 일본어는 수익자를 표현하는 데서 행위자 지향 구문보다 피행위자 지향 구문이 더 넓은 범위(scope)를 가지고 쓰인다.

4. 한국어의 수익구문

한국어의 행위자 지향 수익구문은 일본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술어동사에 ‘-어 주다’를 붙임으로써 만들어진다.

(14) ㄱ. 순희가 철수를 위하여 차를 사 주었다.

 ㄴ. 순희가 철수에게 차를 사 주었다.

(15) ㄱ. 순희가 철수를 위하여 노래를 불러 주었다.

 ㄴ. 순희가 철수에게 노래를 불러 주었다.

(16) ㄱ. 순희가 철수를 위하여 문을 열어 주었다.

 ㄴ. 순희가 철수에게 문을 열어 주었다.

(17) ㄱ. 순희가 철수를 위하여 문을 닫아 주었다.

 ㄴ. *순희가 철수에게 문을 닫아 주었다.

(18) ㄱ. 순희가 철수를 위하여 지네를 죽여 주었다.

 ㄴ. *순희가 철수에게 지네를 죽여 주었다.

(14)-(18)의 예문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한국어의 행위자 지향 수익구문 역시 일본어의 그것처럼 행위자의 행위가 수익자에게 향해짐으로써 그 결과 수익자가 무엇인가를 얻는다는 해석이 가능할 때에 용인된다.

일본어와 다른 점은 한국어가 (19)와 같은 피행위자 지향 수익구문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 *철수가 순희에게 노래를 불러 받았다.

일본어 수익구문과 한국어 수익구문의 비교는 두 언어간의 유형론적 차이에 관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설을 시사한다.

(20) 가설 A: 피행위성(affectedness)을 나타내는 데서 한국어는 행위자 지향적이며 일본어는 피행위자 지향적이다.

 가설 B: 피행위성을 나타내는 데서 한국어에서는 행위자의 행위가 필연적 결과로 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 피행위성이 지배적인 반면

일본어에서는 행위자가 일으킨 행위나 사건의 결과 피행위자가 영향을 ‘느낀다’는 주관적 피행위성이 더 지배적이다.

한국어와 일본어 두 언어간의 유형론적 차이에 관한 이 두 가지 가설은 아래에서 피행위성을 나타내는 또하나의 대표적인 구문, 피동문 분석에 적용됨으로써 그 타당성이 검증된다.

5. 한국어와 일본어의 피동문

일본어 피동문은 주로 직접피동과 간접피동으로 구분되어 연구되어 왔다(Kuno 1973, Teramura 1982, Song 1994). 직접피동문이란 (21)처럼 피동문의 주어가 능동문의 직접 목적어와 대응하는 피동문이며 간접피동문이란 (22)처럼 피동문 주어가 능동문의 직접목적어에 대응하지 않는 피동문이다.

(21) ㄱ. *sensei-wa John-o shikat-ta*

teacher-Top Acc scold-Past

‘The teacher scolded John.’

ㄴ. *John-wa sensei-ni shikar-are-ta*

Top teacher-Dat scold-Pass-Past

‘John was scolded by the teacher.’

(22) ㄱ. *sensei-wa John-no musuko-o shikat-ta*

teacher-Top Gen son-Acc scold-Past

‘The teacher scolded John’s son.’

ㄴ. *John-wa sensei-ni musuko-o shikar-are-ta*

Top teacher-Dat son-Acc scold-Pass-Past

‘John was subjected to the teacher’s scolding his son.’

한국어 피동문도 일본어의 직접피동과 간접피동과 유사한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왔다. (cf. Kim. 1964, Lyeom 1980)

(23) 철수는 순경에게 잡혀었다.

(24) 철수는 순경에게 아들을 잡혀었다.

한국어와 일본어 피동문은 주어가 유정물(animate) 특히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과 주어가 가리키는 인물이 불리한 영향을 받았다는 함의(connotation)를 가진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보인다.

두 언어 피동문은 동시에 상당한 차이도 보인다. 첫째, 한국어 피동에는 강한 어휘적 제약이 있는 반면 일본어 동사는 거의 예외없이 피동화 될 수 있다. 둘째, 한국어에는 자동사의 피동문이 없으나 일본어에서는 (25)처럼 자동사도 타동사와 마찬가지로 피동화될 수 있다.

일본어

(25) ㄱ. *kodomo-ga nai-ta*

child-Nom cry-Past

‘The child cried.’

ㄴ. *Mary-ga kodomo-ni nak-are-ta*

Nom child-Dat cry-Pass-Past

‘Mary was subjected to the child’s crying.’

한국어

(26) ㄱ. 아이가 울었다.

ㄴ. *순희가 아이에게 울리었다.

셋째, 한국어 피동과 일본어 피동은 대격이 주어진 명사의 해석에 관하여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어 피동문에서는 주어가 된 명사와 대격명사는 그 의미해석에서 채귀소유관계(reflexive possessive relation)에 있어야 하지만 일본어 피동문에는 그와 같은 제약이 없다. (27)에서 대격명사 ‘머리’는 ‘철수의 머리’지만 일본어 피동문 (28)에서는 ‘John 의 머리’로 해석될 수도 있고 ‘Mary’의 머리로 해석될 수도 있다.

(27) 철수는 순희에게 머리를 깎이었다.

(28) *John-wa Mary-ni kami-o kir-are-ta*

Top Dat hair-Acc cut-Pass-Past

‘John was subjected to cutting his/her hair.’

이 차이는 (29)처럼 대격명사가 주어나 여격명사가 뜻하는 인물의 일부가 아닌 경우에 더 명백해진다. 한국어에서는 이와 같은 피동문은 사용되지 않는다.

(29) *John-wa Mary-ni Bill-no kami-o kir-are-ta*

Top Dat Acc hair-Acc cut-Pass-Past

‘John was subjected to Mary’s cutting Bill’s hair.’

(30) *철수는 순희에게 영희의 머리를 깎이었다.

넷째로, 일본어에서는 사역문도 피동화 될 수 있으나 한국어에서는 사역문은 일반적으로 피동화되지 않는다.

(31) ㄱ. *Mary-wa John-ni sakana-o tabe-sase-ta*

Top Dat fish-Acc eat-Cause-Past

‘Mary made/let John eat fish.’

ㄴ. *John-wa Mary-ni sakana-o tabe-sase-rare-ta*

Top Dat fish-Acc eat-Cause-Pass-Past

‘John was subjected to Mary’s making him eat fish.’

(32) ㄱ. 어머니가 아들에게 책을 읽히었다.

ㄴ. *아이는 어머니에게 책을 읽히었다.

‘The son was subjected to his mother’s making him read a book.’

한일 피동문의 비교는 피행위성을 나타내는 데서 일본어가 한국어보다 행위자 지향구문인 피동문을 더 많이 쓰며 한국어는 능동문을 더 많이 쓴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어 상(voice)구조에서는 수익구문의 쓰임과 마찬가지로 피행위자 지향 구문인 피동이 행위자 지향 구문인 능동보다 더 넓은 범위(scope)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일본어 피동문 (33 ㄱ)과 (34 ㄱ)에 대응하는 능동문이 없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가 있다.

(33) ㄱ. *Mary-wa kodomo-ni nak-are-ta*

Top child-Dat cry-Pass-Past

‘Mary was subjected to the child’s crying.’

ㄴ. **kodomo-wa Mary-ni nai-ta*

child-Top Dat cry-Past

(34) ㄱ. *John-wa Mary-ni takusan tabe-rare-ta*

Top Dat a lot eat-Pass-Past

‘John was subjected to Mary’s eating a lot.’

ㄴ. **Mary-wa John-ni takusan tabe-ta*

Top Dat a lot eat-Past

일본어 피동문 (34 가)은 피행위자 지향 수익구문 (13 나)과 두 가지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13 나) *John-wa Mary-ni takusan tabe-te-morat-ta*

Top Dat a lot eat-receive-Past

'John had Mary eat a lot(for him).'

첫째로, 피동문 (34 가)과 수익구문 (13 나)은 모두 대응하는 행위자 지향 구문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일본어에서는 이러한 피행위성(affectedness)을 나타내는 데서는 피행위자 지향 구문이 지배적이며 대응하는 피동문과 수익구문을 가지지 않는 한국어에서는 행위자 지향구문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20)의 가설 A 와 일치한다.

둘째로, 피동문 (34 가)과 수익구문 (13 나)은 *John*의 행위 [많이 먹는다]가 의도적으로 *Mary*에게 향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34 가)은 *John*이 많이 먹은 결과가 우연히 *Mary*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될 때에 쓰일 수 있다. 이것은 일본어 피동문이 행위자의 행위가 그것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피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 피행위성에 의해서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일으킨 행위나 사건의 결과로 피행위자가 어떤 영향을 느낀다는 주관적 피행위성에 의해서도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어 피동문은 객관적 피행위성을 나타내는 것이 지배적이며, 주관적 피행위성을 나타내는 것은 드문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피동문에 대한 분석은 (20)의 가설 B 와 일치한다.

6. 결론

우리는 이 글에서 일본어와 한국어의 수익구문과 피동문을 비교/분석한 결과 두 언어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유형론적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 피행위성의 표현에 있어서 한국어는 행위자 지향적인 반면 일본어는 피행위자 지향적이다.

(ii) 피행위성의 표현에 있어서 한국어는 객관적 피행위성을 위주로 하는 반면 일본어는 주관적 피행위성을 위주로 한다.

참고문헌

김백현 1964 <<조선어 동사 형용사의 상>>, 평양: 과학원 출판사.

럼종렬 1980 <<문화어 형태론>>,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 출판사.

Chang, Suk-jin 1996. *Korean*.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Hoshi, H. 1999. Passives. In *the Handbook of Japanese Linguistics*, (ed.) N. Tsujimura. Blackwell, 191-235.

Kaga, N. 1997. Nichi eigono jyueki koubun to imi yakuwari. In *Voisu ni kansuru hikaku gengogakuteki kenkyuu*, (ed.) Tsukuba daigaku gendai gengogaku kenkyuu, Sansyuusya, 209-248.

- Kuno, Susumu 1973. *The Structure of the Japanese Language*. Cambridge, Mass: MIT Press.
- Levin, B. 1993. *English Verb Classes and Alterna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edjalkov, V. P. & G. G. Silnitsky. 1973. The Typology of Morphological and Lexical Causatives. In *Trends in Soviet Theoretical Linguistics*. (ed.) F. Kiefer, Dordrecht, 1–32.
- Pinker, S. 1989. *Learnability and Cognition*. Cambridge, Mass:MIT Press.
- Shibatani, Masayoshi 1985. Passives and Related Constructions: A Propotype Analysis. *Language* 61, 821–848.
- ⌋ 1990. *The languages of Japa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 1994. Benefactive Constructions: A Japanese–Korean Comparative Perspective. *Japanese/Korea Linguistics* 4, 39–74.
- ⌋ 1996. Applicatives and Benefactives: A Cognitive Account. In *Grammatical Constructions*. (ed.) Shibatani, M. and S.A. Thomp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ong, Nam Sun 1987. Empathy–based Affectedness and Passivisation. *Transactions of the Philological Society* 85, 74–89.
- ⌋ 1994. *Thematic Relations and Transitivity in English, Korean and Japanese*. University of Hawaii Press.
- Teramura, H. 1982. *Nihongo no shinkakusu to imi*. Totyo: Kuroshio Shuppan.
- Washio, R. & K. Mihara. 1997. *Voisu to asupekuto*. Kenkuusya Shyuppan.
- Washio, R. 1997. Hikaku bunpouren no kokoromi~voisu no mondai o cyuushin ni. In *Voisu ni kansuru hikaku gengogakuteki kenkyuu*. (ed.) Tsukuba daigaku gendai gengogaku kenkyuukai, Sanyuusya, 3–66.
- Yeon, Jae–hoon. 2000. When causatives meet passives in Korea.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and Phonetics* 10, SOAS, University of London.